

# 보살행 두 불자



## 곽호성씨 "복지시설로 써달라" 5천만원 상당 집 기증

평생 노력해 모은 재산과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서원으로 모든 돈을 승가원에 흔쾌히 보시한 두 불자가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현대중공업에 근무하고 있는 곽호성씨(46). 지난 14일 아내 김금숙씨(43)와 상의 끝에 지난 92년에 매입한 대전 대덕구 소재 32평짜리(대지 72평) 집을 복지시설로 써 달라며 승가원에 기증했다.

시가로 5천만원이나 하는 집을 흔쾌히 보시하는데는 과씨의 가슴아픈 사연이 있다. 가난때문에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보낸 둘째 아들을 못내 잊지 못하던 어머니 석순덕씨는 과씨가 7살때 세상을 떠났다. 과씨에게 남은 것은 가난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84년 달동네 단칸방을 시작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한 과씨는 아내 김씨와 함께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다. 그리고는 4년만에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용암동에 작으나마 내집을 마련하고, 92년에는 지인(知人)의 소개로 대전에 집 한 채를 마련하게 되었

다.

어느 정도 벗어난 가난. 하지만 어머니의 한과 그리움에서만큼은 벗어날 수 없었다. 어머니를 위해 몇년째 조계사에서 백일기도도 올리고, 91년부터 소쩍새마을 회원으로 가입해 불우이웃을 도와왔지만 부족하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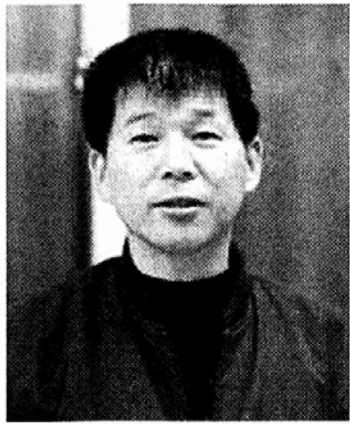
그런 차에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접해온 과씨는 대전에 사농은 집이 이런 불우이웃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됐으면 좋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이 곧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집이 어머니 이름을 딴 '순덕 나눔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모두 다 부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며 "승가원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써주지만 한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과씨는 이번 부처님 오신날에는 제 등행렬에 참가해 중학생인 두 아이에게 아빠 엄마의 뜻을 말해줄 생각이다.

부산에서 청양산업이라는 조그만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성균씨(46)는 지난 설 전날 소쩍새 마을 계좌에 1천만원을 입금시켰다. 평소 소쩍새마을을 돕겠다는 발원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그가 처음으로 소쩍새 마을을 방문한 것은 98년. 그 방문에서 소쩍새 마을에 살고 있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푼푼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 발원한지 1년이 지난 무렵 뜻밖의 돈이 생겼다. IMF 이후 거래업체들이 어려워지면서 받지 못했던 미수금을 우여곡절 끝에 받게 된 것이다. 그 돈은 그에게 사업상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돈이었지만 이 돈을 지금까지 모은 돈과 합쳐 소쩍새 마을에 보시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발원하고 도움을 준 곳이 비단 소쩍새 마을만은 아니다. 아씨와 부인, 아들 둘에 사는 생활이다. 불국사, 통도사 등에 이름나지 않게 보시해 왔고 부인과 함께 죽기 전까지 5백 벌의 가사불사를 발원하고 실행하고 있기도 하다. 75년 대를 원할 활동으로 불교와 연을 맺고 있는 부인도 대를려에서 만났고 결혼도 스님 주례로 했을 만큼 불원이 깊다.



## 이성균씨 푼푼이 모은돈 1천만원 소쩍새 마을에 입금

남을 돕는 것에 아낌없는 그이지만 정작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은 아주 검소하고 철저하다. 사업상 거래처에 매년 2백달러의 구두를 선물하지만 정작 본인은 17년전 결혼때의 구두를 지금도 신고 있다.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하면 늘상 작업복 차림이다. 그의 부인은 그 작업복을 그의 '교복'이라고 놀릴 정도. 그의 부인과 아들들은 집에서 남은 옷을 예사로 입는다. 회사에서도 이면지 활용이나 재활용은 당연한 일로 되어 있다.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졌을 뿐이니 잘 관리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 나만을 위해 쓸 수 없고 어려운 이들과 나누어야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소유자'이기보다 '관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그는 나누는 지혜, 보시의 기쁨을 알기에 세상 무엇보다 부러워 것이 없다.

한명우·천미희기자  
(mwhan@buddhapia.com)

# 1000일간 릴레이 철야정진

정토회, 3월1일부터...평화통일 염원

남북통일을 발원하는 철야정진 기도의 신기원이 세워질 전망이다.

좋은벗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JTS가 속해있는 정토회(지도법사 법률)는 '평화로운 세상과 겨레의 하나됨을 위한 1000일 24시간 정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0일간 릴레이 철야정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토회는 3월1일 10시에 '평화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 참여단체와

함께 선포식을 갖고 '1000일 24시간 철야 정진'에 들어간다. 또 매주 금요일 통일학교를 개최하고, 통일복지 저금통을 나눠주며 통일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방침이다.

3월 3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총 143회 동안 진행될 통일학교 세미나는 전문강사의 강연과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강자는 전문적 이론보다 불자 스스로 통일을 자

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생활에서 함께 접할 수 있는 주제로 이끌어 갈 방침이다.

통일복지 저금통을 통해 모금한 기금은 북한통포를 돕고 농업지원과 의약품지원, 위생복지사업, 산림복구 사업에 쓰여진다.

특별위원회 노숙제(청년정토회) 간사는 "1000일 동안 법당에서 기도와 묵타소리가 끊이지 않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시간 철야정진은 교대할 때 5분 동안 앞 뒤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하게 해 통일열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재경 기자

# 가톨릭 신자 관음상 조성 길상사 봉헌

"나의 신앙적 분향은 가톨릭이지만 예술적 원천은 불교였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원로 조각가 최정태(전 서울미대 교수)씨가 관세음보살상을 조각해 서울 길상사에 봉안하기로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여름 소설가 정재홍씨의 소개로 길상사 회주 법정스님을 만난 최씨가 종교의 벽을 넘어 스님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스님이 회주로 있는 길상사에 관음상을 봉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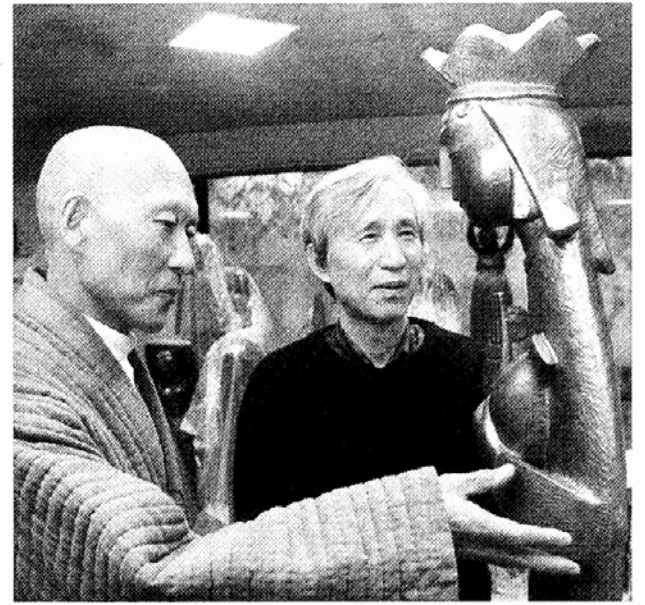
최씨는 현재 현대적 조형미를 갖춘 120cm의 청동 관세음보살상 제작을 마쳤다. 최씨는 이 관음상을 토대로 180cm의 화강암 관세음보살상을 제작, 4월28일 관음제일에 길상사 설법전 앞에 봉안할 계획이다.

최씨로부터 최근 청동 관세음보살상 복사본 하나를 선물받아 강원도 산골 자신의 오두막(토굴)에 봉안한 법정스님은 "불교에는 불상을 조성한 사람이 불모(佛母)로 섬기고, 그 불상은 불모를 닮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씨가 만든 관음상은 그의 이미지를 닮았다고 말했다."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으로 전국의 유명 성당과 성지, 수도단체 등에 한국적 순교자상과 성모상 등을 봉안했을 만큼 독실한 천주교인인 최씨가 불상제작을 하게 된 데에는 김수환 추기경과 장익 주교의 흔쾌한 찬성과 격려가 큰 힘이 됐다는 후문이다. 김 추기경은 일본에 천주교가 전파된 초기, 성모상을 구하지 못한 천주교인들이 관세음보살상에 작은 십자가 등을 표시해 감시의 눈을 피해가며 예배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격려해 주었다고 한다.

천주교와 불교의 아름다운 만남. 관세음보살상은 대자대비의 상징이자 중생의 재난과 고통을 구제하는 '자비의 어머니'의 이미지와 함께 천주교 '성모마리아'의 박애와 사랑의 미소까지 담고 있는 듯하다.

도필선 기자



◇종교의 벽을 넘어 아름다운 인연을 맺은 법정스님과 최정태씨. 스님이 최근 최씨의 작업실을 방문, 완성된 불상을 보고 흠뻑해 했다.  
(사진=동아일보제공)

# 봉사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동국대 '사회봉사 적립통장' 제도시행

동국대가 2000년 신학기부터 사회봉사활동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연계 지급하고, 학점과 취업알선에도 반영하는 '사회봉사 적립통장' 제도를 시행한다.

일반 은행통장과 같은 크기의 사회봉사 적립통장은 봉사기관과 장소, 일시와 내용, 누적기간 등의 난을 만들어 한눈에 봉사활동 내역을 알아 볼 수 있게 했다. 동국대는 이 통장을 바탕으로 연 1천 시간(봉사횟수 3백회) 이상 봉사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

하고, 연 7백 시간(봉사횟수 2백회) 이상이면 등록금 반액, 연 2백50시간(봉사횟수 80회) 이상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봉사활동 등급에 따라 봉사훈장 '금장'과 '은장', '동장' 등을 수여, 해외연수 취업추천서에도 우선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동국대는 이 통장을 16, 17일 열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 전원에게 나눠주고, 재학생과 교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해 봉사활동을 생활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자 기자

# 『아래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전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이책은 영가의 장에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산과 재물이 위태롭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가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 (0335) 334-9490, (0335) 334-9491  
야간 : (0342) 706-306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 "북한사찰 60여개 스님 3백여명"

법타스님 '북한불교연구' 펴내

현재 북한에는 60여개의 사찰에 1만여명의 불교신자가 있으며 300여명의 대려승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타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의 공동대표)은 최근 국내 첫 북한 불교 종합보고서로 평가되는 <북한불교연구>(민족사)를 통해 북한 불교실태와 변화상을 여실히 담아냈다.

법타스님은 지난 89년부터 99년까지 5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 북한불교를 현장답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 '20세기 최근세의 북한불교의 변화에 관한 연

구'로 미국 미주리주 클레이튼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스님의 논문은 이번엔 남북한의 통일정책, 남북불교 관련자료를 추가해 700쪽이 넘는 연구서 <북한불교연구>로 편집·발행된 것.

<북한불교연구>에 따르면 88년 이후 북한에서는 매년 불교의 3대 명절인 성도절, 열반절, 석탄절에 모향산 보현사, 평양 용화사 등 각 사찰에서 기념법회를 주관하는 등 불교의식도 거행하고 있다. 승려교육기관으로는 불학원(佛學院)



을 두고 지도교수와 같은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승려들은 대려승 제도와 마찬가지로의 복이나 의식 또한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남한처럼 조계종을 표방하며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다.

김재경 기자

# 격월간 '인드라망' 창간

인드라망생명공동체(삼일공동대표 도법)는 격월간 기관지인 <인드라망> 창간호(3·4월호)를 2월말에 창간한다. 100쪽 분량으로 엮여진 <인드라망>은 녹색연합에서 발행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형식으로 꾸며지며, 회원들의 동향과 글 모음, 생명·환경운동 전문가들의 글 등을 게재해 불교의 생명사상을 널리 알리게 된다. 동회는 3월3일 오후3시 조계종 포교사단 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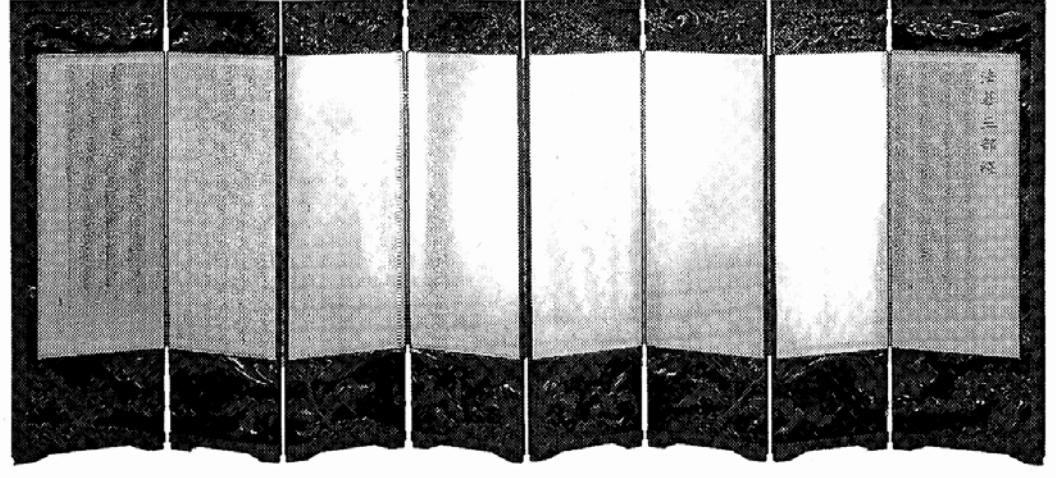
한편 실상사 귀농전문학교는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김재경 기자

# 현세(現世)의 불자들이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家寶)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품(聖品)

# 법화삼부경(一名, 법화경) 금니 8폭 조각 병풍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승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폭마다 연꽃, 우물, 범룡,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세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승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장등등록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폭 한폭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폭 한폭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 ① 집안의 공기가 병풍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기(法氣)의 영향으로 맑아지면서 집안에 생기가 가득차고 앞으로 6개월밖에 못산다는 중환자가 건강이 점점 호전되어 낫아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 ② 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사장이 이 병풍을 모신 후부터 매출이 몇배 신장되고 우연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기고 하여 이제는 완전히 회생하였다.
- ③ 자손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이 병풍을 모시고 그 안에서 2개월 정도 기도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 ④ 집안에 도적이 들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에 현금과 보석이 가득한데 그것을 훔쳤고 간 것은 병풍의 법기(法氣)가 재산을 가려주었다고 본다.
- ⑤ 사법시험에 응시하던 실재하던 고시생이 집안에 병풍을 모신 후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 ⑥ 수험생을 둔 학부모 7명이 모두 병풍을 모신 뒤 원하는 대학에 특목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 ⑦ 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위가 병풍을 모신 뒤 바로 불교로 귀의하면서 매일같이 병풍앞에서 3배씩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불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 ⑧ 37세의 노처녀가 병풍을 모신 뒤 2개월 만에 총각 한의사를 만나 결혼하였다.
- # 상기 효험사례 외에 병풍을 모신 사람마다 크고작은 집안의 경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안이 화목해지고 어떤 일을 하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힘(力)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 ※ 연락주시면 카달로그 및 설명서 보내드립니다